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선거구별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많은 후보들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가운데 일부 선거구는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경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로 광주 3곳을 우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민주당의 1차 경선 지역구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경선 관전포인트와 변수를 분석하고, 각 정당 후보들을 소개한다.

현 의원·대표 특보 민주 경선 ... 노형욱·오경훈은 재심 신청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선 도전에 나서는 운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 대표 정부특별보좌관의 2인 경선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이 컷오프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함에 따라 재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후보 공천을 위한 2인 경선에 나서는 윤 의원은 재선 도전이다. 그는 현재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교육·운영·정무·예결위원회 등의 다양한 상임위를 거치며 풍부한 의정활동

국힘 강현구 전 광주 건축사회장... 녹색정의당 문정은 후보 등록

동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승촌 파크골프장 조성 및 진월동 송전탑 이전,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을 앞세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정 특보는 최근 2년 사이 이재명 당 대표의 대변인인 4번을 역임하는 이석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인연 탓인지 '원의 천명' 인사로 꼽히고 있다. 정 특보 캠프에는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차기 남구청장 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조직력이 탄탄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선 과정에 현역에 맞서 탄탄한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그는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로부터 과거 탈당 경력에 대한 감산 예외 적용을 받음에 따라 '진명계 특혜'라는 비난 속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였던 '페널티'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정 특보는 경제·산업·교육 분야 등에 대한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지역 민심에 다가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현구 전 대한건축협회 광주



윤영덕



정진욱



강현구



문정은

시 건축사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는 민주 평화동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광주 부의장을 맡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에 출마해 두 자릿수 득표율인 15.93%를 얻는 등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은 최연소 시당위원장인 문정은 광주 시당위원장이 출마에 나섰다. 문 위원장은 최연소 시당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정의당 대변인과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내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진보당은 후보를 몰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오섭 재선 도전이나 정준호 설욕이나... 고교 동문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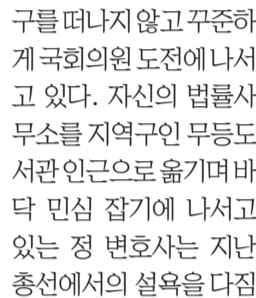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북구갑 선거구 후보 경선은 고교 선후배간 '리턴매치'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관위가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 등 2인 경선지역으로 압축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배제)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기로 해 재심 결과에 따라 경선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선 도전에 나선 조 의원과 정 변호사 간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경선에서는 조 의원이 승리, 공천권을 따낸 뒤 국회에 입성한 만큼 정 변호사는 이번 경선

청년 가점 10% 주목...국힘 후보 아직 못찾아, 진보 김주업 출사표

에서 설욕전을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만성 경제 고위원(의원),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신지구 지정 등을 이끌며 청년들이 모여드는 호남 최대 창업단지를 가시화 시킨 의정활동 성과도 돋보인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3대 의혹 제기와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주요이슈를 주도했고,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중앙정치에서 실력과 능

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대구 국회의원과 함께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이끌어내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 대변인, 대선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하는 등 언론과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등 당내 활동도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정 변호사는 이 선거구에서 세 번째 도전을 준비중이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지역



조오섭



정준호



김주업

구를 떠나지 않고 꾸준히 국회의원 도전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지역구인 무등도서관 인근으로 옮기며 바둑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정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서방천을 광주 청계천으로 복원, 전남대 인접 도심 지역 캠퍼스 타운 조성 등의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지역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얻은 지지율에 청년 가점 1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선에서의 지지율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가 없어 총선에 나설 후보를 당 안팎에

서 몰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지낸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 중심으로 발품을 팔아지며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그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를 깨달라는 호소를 하며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어가는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형석·전진숙 리턴매치... 민주 경선 여성 가점 25% 변수

광주 북구를

더불어민주당은 재선에 도전하는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간 1대1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 공관위가 2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컷오프(공천 배제)된 예비후보 모두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재심 신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온 이 의원과 전 전 행정관이 4년 만에 '재혈투'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리턴매치'에 최고 25%의 여성 가점이 경선 과정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형석

국힘 후보 몰색 중...녹색정의당 황순영, 진보당 윤민호 출마

의원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광주시의회 재선 의원, 노무현 정부 사회조정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의원), 광주시 경제부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시의원일 때는 전국 최연소광역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러 경험을 통한 행정-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에 고매를 마시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78.8%)을 기록하면서 국회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숙원이자 자신의 공약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을 해결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재선 도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리턴매치에 나서는 전진숙 전 행정관은 지역 여성 정치인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이다. 광주 수피아여중, 동신여고, 전남대 화학과를 졸업한 광주 토박이로 여성,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광주 북구위원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광주시의원,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며 지방정치부터 중앙정치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이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는 지역·사회혁신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의 전국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이형석



전진숙



황순영



윤민호

받는다. 전 전 행정관이 경선 과정에 얻은 지지율에 여성 가점 25%를 받게 되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북구를 당협위원장인 김인숙 호남사랑 이사장의 출마가 거론됐지만 1차 공천 신청자에 김 이사장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북구를 지역구에 포함할 후보를 찾는 중이다. 녹색정의당은 전신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을 지냈던 황순영 북구지역위원장이 표심을 노리고 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으며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정의당을 거쳤다. 진보당은 전 광주시당위원장이었던 윤민호 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마한다. 윤 공동대표는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교육과 노동 분야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l)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정부청장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